
쿠바 경제의 침체

카르멜로 메사-라고

피츠버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지역학 및 경제학 교수

원제와 출처: Carmelo Mesa-Lago, “El 《enfriamiento》 de la economía cubana”,
Nueva Sociedad, No. 279, enero-febrero de 2019, pp. 13–24.

핵심어: 헌법, 성장, 경제, 쿠바

10여 년의 집권 기간 동안 구조개혁을 시행한 이후, 라울 카스트로는 2018년 4월 국가평의회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당시 57세였던 민간인 신분의 미겔 디아스-카넬에게 개혁의 횃불을 넘겨주었다. 이는 포스트-혁명 세대로의 길을 연 계기가 되었다. 2018년을 목표로 공표했던 화폐 단일화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새로운 헌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들을 승인했다. 본고는 라울 카스트로 정부 하의 경제 활약상, 특히,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주목하여, 경기침체의 원인들을 규명하고 2019년 활약을 진단해보고자 한다.¹⁾ 사용된 수치는 쿠바통계청(ONEI)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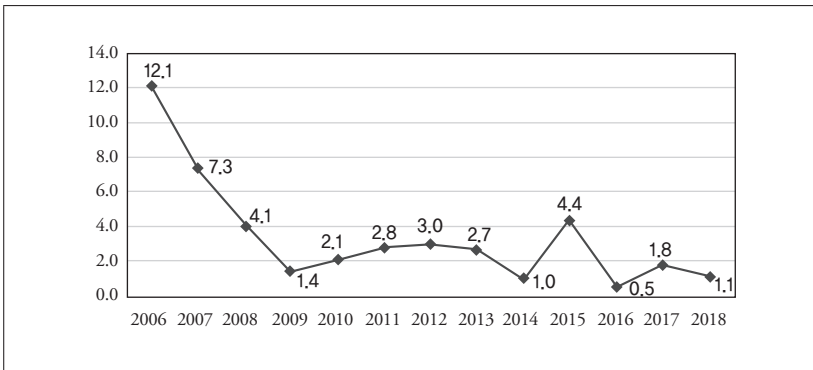
경제적 성과

2007년-2018년 사이의 성장

쿠바 경제는 2006년에 12%로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08년에는 4.1%로 감소했고 2009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예측치인 5~6%를 훨씬 밑도는 수치인 연 성장률 2%에 머물렀다(그림 1).

쿠바의 공식 통계치의 잦은 변동은 전문가들 사이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개월 사이 1.4% 포인트 상승한 0.5%로 발표됐다. 2017년 말에는 1.6%로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이후 1.8%까지 상향조정되었다. 특히, 이 2017년도 수치는 여러모로 미심쩍다. 상반기 공식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1.1%였는데, 이는 그 해 하반기에

〈그림 1〉 쿠바: 지속적인 증가세인 경제성장률(GDP의 연간증가율) (2006-2018년)



출처: 쿠바통계청(ONEI) 〈쿠바 연간 통계〉

1) 이 시기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저자의 다음 기사를 참고할 것. C. Mesa-Lago: 〈La economía cubana: situación en 2017-2018 y perspectivas para 2019〉 en Cuba Posible, 4/12/2018.

2.5% 성장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통상 쿠바는 1년 중 상반기가 하반기에 비해 관광객이 많은 시즌이며 사탕수수 수확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상 경기가 좋은 시기이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다. 9월 초에 쿠바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르마, 그리고 잇따른 극심한 가뭄까지 장기간 겪는 바람에 GDP의 9%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다.²⁾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 관광객이 쿠바 군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숙박하거나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음파 공격의 위협으로 쿠바를 여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베네수엘라의 쿠바 전문 서비스, 석유 등에 대한 수요 감소, 설탕과 니켈의 국제 시장 가격 하락, 경제 개혁으로 인한 마비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반기, 만기가 도래한 신용장의 불이행으로 인해 해외 신용 규제가 있었다. 따라서 2017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높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2018년에는 2017의 사태가 반복되었다. 6월에 디아즈-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상반기에 1.1%의 성장률을 발표했다. “금융 상황은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 재정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의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³⁾ 설탕 수확량은 겨우 백만 톤에 그쳐, 역사상 가장 낮은 수확량을 기록했다. 니켈 생산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침체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설탕과 니켈 가격은 감소하였다. 2018년 1월부터 9월 사이의 관광객 수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3% 낮은 수준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따른 미국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것이지만 다른 국가로부터 관광객 감소도 있었다. 비록 크루즈 관광객 수는 증가하였으나 이들은 비행기로 도착하는 관광객 수보다는

2) Miguel Ángel Criado: 《El misterio de los ataques sónicos a diplomáticos de Estados Unidos》 en El País, 29/6/2018.

3) En cfe, 22/7/2018; Juventud Rebelde, 28/8/2018.

훨씬 더 적게 소비를 한다.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군이 경영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확대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훨씬 더 악화되었는데, GDP의 15%가 하락한 것으로 전망되었고⁴⁾ 백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과 식약품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쿠바 전문 서비스의 판매, 석유 등 교역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난 10월에 쿠바 정부는 2018년 경제성장률을 1%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측했다.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는 전망치를 1.5%에서 1.1%로 낮췄는데,⁵⁾ 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4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디아즈-카넬 의장은 지난 12월 국회에 2018년 경제성장률은 1%보다 “약간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2019년 계획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성장률에 맞출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는 경제가 여전히 정체되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⁶⁾

금융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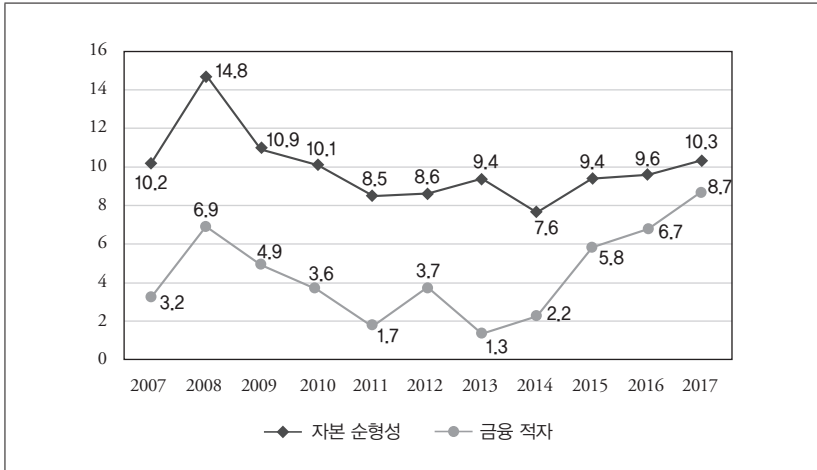
총자본형성률은 경제성장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는데 2008-2017년 사이 쿠바에서 이 수치는 GDP의 14.8%에서 10.3%로 감소했다(그림 2). 1989년에 25.6%에 달하기도 했는데 경제발전을 위한 적절한 수준이었다. 재정적자는 2013년 1.3%로 감소한 바 있는데, 2017년에는 8.7%로 증가하였다(당시 지역 평균은 3.1%였다). 2018년에는 11.9%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 《Cepal informó que pib de Venezuela cayó 15% en 2018》 en 2001.com.ve, 20/12/2018.

5) Cepal: 《Actualización de proyecciones de crecimiento en América Latina y Caribe 2018 y 2019》, Santiago de Chile, 2018.

6) Yudy Castro Morales: 《Plan de la economía del 2019: objetivo y realista》 en Granma, 16/12/2018.

〈그림 2〉 쿠바: 자본 순형성 과 재정적자(2007-2017년)



출처: 쿠바통계청(ONEI) 〈쿠바 연간 통계〉

농업

농업 생산은 정체기를 지나고 있다. 2007년에는 GDP의 4%를 차지하다가 2017년에는 3.7%로 하락하였다. 농업 생산증가율은 2007년 19.6%에서 2017년 -1.5%로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농산물 수입비중은 12%에서 18%로 상승했다. 2017년 쿠바의 농산물 수입규모는 18억 달러에 이르는데, 그 중 60%는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물량이었다. 라울 카스트로 휘하 주요 농업 개혁은 2008년 말에 시작된 토지사용권 제도로 유희 국유지를 국가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농부, 협동조합, 정부에게 사용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2009년-2017년 통계는 이 방식이 생산을 증대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2017년 기간 동안 농수산물 생산량을 기간 내 최고치와 작년수치를 비교해보면 13개 작물 중 12개의 생산량이 감소했고 이 중 7개는 1989년(구소련의 몰락과 90년대 심각한

위기) 이전 수준보다 더 낮게 하락했다.

산업과 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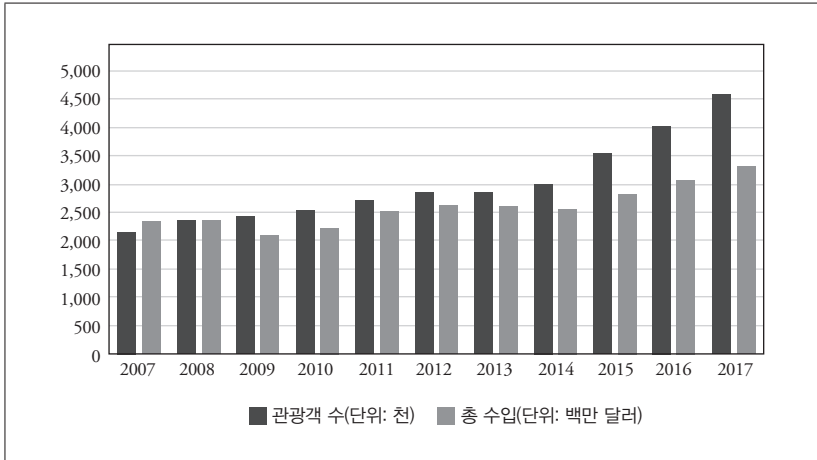
2017년 제조업 생산 지표는 1989년 수준 대비 32%로 감소하였으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1.8%). 광업 생산은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GDP의 0.6%에서 0.5%로 감소했으며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1.4%). 2017년 11개 주요 광물 및 공산품의 생산량을 2007년-2017년 사이 최고치와 비교하면 9개 제품에서 감소가 나타났고 2개 제품은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5개 제품은 1989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반면, 천연가스, 약품, 석유 부문은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광업

쿠바에서 관광업은 최고의 성적을 보이며 외화취득의 세 번째 소득원이다. 관광객 수는 2007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117%), 2015년부터는 미국과 쿠바 간 관계 정상화로 인하여 특히 증가했다. 하지만 관광으로 인한 총수입은 덜 증가했는데(기간 내 48%), 이는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가 26% 감소하였으며(그림 3), 호텔 침실 점유율은 증가하지 않고 동 기간 평균 58.6%에 머물렀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관광 시설에 막대한 손실을 유발한 허리케인 이르마와 트럼프의 제재 조치들로 인하여 관광객이 감소했다(208,296명 감소). 한편 트럼프의 제재 조치들이 크루즈 여행객의 급격한 증가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항공기 여행객들이 크루즈 여행객들보다 평균 15배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루즈 여행에는 이미 숙박비, 식비, 육로 관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수입이 약 2억 9,700만 달러 감소했다. 2018년 3/4분기 관광객 수는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5%가 증가하였으나, 감소를 회복할 정도는 아니다. 2018년에 475

〈그림 3〉 쿠바: 관광객 수와 총수입 (2007-2017년)



출처: 쿠바통계청(ONEI) 〈쿠바 연간 통계〉

만 명의 관광객을 예상하며, 목표 수준인 5백만 명을 못 미치는 수치이다.

대외무역

쿠바 혁명 하에 상품교역에서 발생한 적자는 2008년 기록을 세웠고 이후 감소했다. 이는 2011년부터 수출액이 감소와 더불어 수입액도 삭감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소비재 및 투자 부족으로 이어졌다. 2017년 상품 수출은 1989년 수준보다 55% 낮는데 반해 수입은 25% 감소하여 적자가 261% 증가했다. 21세기 들어서부터 쿠바는 전문직 서비스(의사, 간호사, 교사 등)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와 협약에 따른 것이며,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전문직 서비스 수출의 75%를 구매하며, 이는 외화획득의 주 원천이 되고 있다. 그것은 서비스 무역 수지 흑자를 낳았고, 2013년 최고치에 달해 상품 무역적자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를 생성하게 된다.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흑자는 2014년-2017년 사이에 30%로 감소했다. 전문직 서비스 수출은 같은 기간 23% 하락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8%에서 8.3%로 감소했는데 이는 쿠바 GDP 하락의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결정한 “더 많은 의사들”이라는 쿠바-브라질 간 협약 종료는 연간 4억 달러의 손실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2017년 니켈 혹은 설탕 수출액과 맞먹는 액수다.

베네수엘라와의 상품교역은 줄어들었다. 베네수엘라 석유 공급은 반으로 감소하였으며 쿠바가 시엔푸에고스(Cienfuegos) 정제소에서 가공한 베네수엘라 원유를 공급받아 수출했던 정제유 역시 반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쿠바의 석유 생산이 2010년-2017년 기간 동안 19%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유기업에 대한 에너지 공급 제한과 삭감 프로그램을 부추겼고, 이는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4년의 정체기와 감소기를 거친 후 2017년 러시아와 교역은 95% 증가했는데, 증가율은 2007년 대비 20%에 머물렀다. 게다가 쿠바는 2018년 11월에 모스크바와 다양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전기 에너지와 철강 생산의 현대화, 철도 수송, 역청(瀝靑)이 포함된 석유 저장고 수출, 레몬 생산 회복(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7년 11월에는 관광 및 재생에너지를 위한 건설 장비 구입(1억 6,400만 달러) 및 사이버보안 프로젝트(1억 2,900만 달러)등 중국과 협약을 체결했다.

송금

해외 전문직 서비스 수출로 인해 쿠바 외화획득의 주요 원천은 송금이다. 쿠바 정부가 수치를 발표하지 않지만, 2008년에서 2017년 사이에 143% (14억 4,700만 달러에서 35억 1,500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화획득의 다른 어

면 출처도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 견줄 수 없다.⁷⁾ 2015-2016년 사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개방은, 송금에 제한을 없앴는데, 현금 송금의 가속화에 요인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제가 송금과는 관련이 없어 송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채

쿠바정부는 대외채무를 줄이기 위한 상당한 채무조정을 얻어냈다. 러시아와는 90%, 중국과는 47.2%, 멕시코와는 70%, 일본 은행과는 80%의 채무를 조정하였다. 2015년에 쿠바정부는 111억 달러 채무를 재협상하기 위하여 파리클럽 가입국 20개국 중 14개국과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85억 달러의 이자와 수수료를 면제받았고 18년 동안 상환해야할 금액은 26억 달러이다.⁸⁾ 채무에 따른 비용은 2016년 4천만 달러, 2017년 6천만 달러, 2018년 7천만 달러에 달했다. 2016년-2033년 기간 내 이자율 증가(1.6%에서 8.9%)로 인해 지불금이 증가하고, 부담을 감당하기 위한 경제성장이 요구될 것이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율은 9%에 달할 수도 있다. 쿠바의 대외 금융 신용도는 향상되었지만, 중간재와 소비재를 포함한 수입 감소가 요구되며, 이는 생산과 소비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협상을 통해 채무와 투자 간 스왑이 가능할 것이다. 주요 채권국들인 스페인과 프랑스는 7천만 달러 상당의 스왑 10건을 체결했으나, 총 채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파리클럽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과도 재협상을 통해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7) Emilio Morales: 《The Importance of Remittances in the Cuban Economy》, THCG Business Report No 2, 2018.

8) Jorge Pérez-López: 《Cuba's Never Ending External Sector Crisis》 en Cuba in Transition vol. 27, ASCE, Miami, 2017.

베네수엘라와 약 113억 3천 6백만 달러,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사절단이 2018년에 채무를 재협상하기 위해 아바나로 방문한 바 있는) 아르헨티나와는 80억 달러, 그리고 중국과는 31억 7천 달러의 채무가 남아있다. 쿠바는 브라질에 6억 8,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우파인 브라질 신정부⁹⁾를 상대로는 어려운 채무구조 재조정을 요청했다.

그 밖의 투자자들에 대한 지불 연기는 2015년 34억 4,900만 달러의 부채를 발생시켰다. 여기에 18억 5,800만 달러의 민간 은행들에 대한 채무도 있다(현재 수치는 없다). 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소유한 런던클럽 소속 3대 채권기관들이 지난 2월에 파리클럽 수준의 채무 재조정을 쿠바에 제시하였으나, 쿠바 정부는 이를 무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재 소송이¹⁰⁾ 개시된 바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2014년에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한 이래 현재까지 175개 프로젝트에 55억 달러를 승인했으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1/5인 5억 달러 만이 실현되었다.¹¹⁾ 지연 사유는 관료제도, 시장에 대한 공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선입견, 고용 및 임금 직접 지급의 불가능, 통화와 외환의 이중제도, 기업들의 충분한 동기, 훈련, 지식의 부족, 트럼프의 제재 강화 등이 있다.¹²⁾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개발을 위한 (보완 대신에) 필수적인 요소로 정의되어 왔고 승인을 가속화하는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투자자 평가를 위한 규제 완화 타당성조사

9) En Reuters, 18/9/2018; cfe, 22/10/2018.

10) En Reuters, 25/10/2018.

11) Omar Everleny Pérez Villanueva: 《La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en Cuba》 en Horizonte Cubano, Universidad de Columbia, 30/11/2018.

12) Ariel Terrero: 《Inversión extranjera en Cuba: amenazas de la lentitud》 en Cuba Debate, 6/11/2017.

면제, 그리고 2019년 외국인 투자 단일 창구 개설 발표,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긍정적인 대책들. 브라질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8억 달러를 투자받아 5년 전에 건설한 마리엘 개발특구에서는 16억 6천 달러 상당의 41건(총 400건의 제안 중)의 투자사업이 승인되었으나, 15건의 사업만이 운영을 시작했다.¹³⁾

2019년 전망

2018년에 발생한 세 가지 정치적 사건들은 2019년 경제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구조개혁의 여러 변화들, 새로운 세대로의 권력 교체, 그리고 새로운 헌법.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 그리고 긍정·부정적인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¹⁴⁾

구조개혁의 여러 변화들

비국유 부문은 세 가지 그룹을 포함한다. 자영업 근로자(59만명), 유흥 국유지 이용자(27만 4,635명), 비농업 부문 및 서비스 조합원(1만 8,600명). 이들은 전체 노동력의 30%에 달하고, GDP의 7%를 창출하며 납세 수익의 11%를 기여한다. 2018년 자영업 근로자들과 유흥 국유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승인된 규제들은 이들의 확장세를 통제하고, 세금을 인상하며, 재산과 부의 축적을 방지하고자 한다.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상적이고 정치적 논리에 따른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 합리성을 억압하고 경제적 역효과들을 생성할 것이다. 중국 공

13) Lisset Izquierdo y Lisandra Romeo: 《Apertura del Tercer Foro de Inversiones》 en Cuba Debate, 30/10/2018.

14) C. Mesa-Lago: ob. cit.

산당 신문인 <인민일보>는 358억 달러의 자산가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인 잭 마에 관한 기사를 막 실은 바 있다. 그는 중국의 개방과 개혁들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준 100명의 목록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 움베르토 에레라 카를레스는 부의 집중을 막으려는 시도는 쿠바인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잠재력과 노동 생산성을 억제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에 화폐 단일화¹⁵⁾가 시작될 것이라는 라울 카스트로의 약속은 쿠바가 직면한 커다란 장벽들과 취약한 경제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 비국유화 부분의 도매시장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부가 농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부활했다. 몇몇 지방에서는 농산물 매매가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세대 교체

라울 카스트로는 세대 교체 과정을 차곡차곡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무위원장과 내각위원장을 겸하는 쿠바의 국가 원수의 임기를 5년 중임제로 정하고, 이를 몸소 실천한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카스트로 성씨가 아니면서 반란기 이후에 태어난 시민이 대통령직을 맡았다. 미겔 디아스-카넬.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프로그램을 가지지 않았고 임명 후에는 라울 카스트로와 집권당이 승인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행했을 뿐이다.

신임 행정부 구성을 보면, 총 22명의 국무위원 중, 56.4%가 남아있고 45.4%가 새롭게 임명되었으며, 내각위원 22명 중 17명이 비준되고 9명이 임명되었다.¹⁶⁾ 이는 지도자 개혁이 부분적으로 이뤄졌으며, 과거 정권 출신이 우세하다는 점을

15) 현재 쿠바에는 이중화폐제도가 존재하는데, 쿠바인들이 사용하는 '쿠바 인민페소(CUP)'와 외국이 사용하는 외화 환전이 가능한 '외국환 페소(CUC)'가 통용되고 있다.

16) Domingo Amuchátegui: 《Nuevo presidente en Cuba》 en Cuba Posible, 10/5/2018.

의미한다. UN 총회 첫 연설에서 디아스-카넬은 다음과 같이 공언했다. “우리 정부의 세대 변화는 개혁의 반대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계속이지 파괴가 아니다.”¹⁷⁾

신 헌법¹⁸⁾

2018년 6월에 쿠바 의회인 인민권력국가의회의는 1976년 헌법을 대체하기 위한 개정 헌법 초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라울 카스트로가 추진한 구조개혁 사안들을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33명의 의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같은 해 8월 초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개정안이 검토되었는데, 이후 인민권력국가의회의 승인과 국민투표를 거칠 것이다.

개정안은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에서 사회주의적 성격 및 사회의 주요한 정치력으로서 당의 중심 역할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에서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특정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체제는 불가침(변경 불가능)”이라는 2002년 수정 조항이 추가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비효율성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권보다 월등한 형태로서 국영기업과 더불어 중앙집권적 국유화 모델의 요지는 유지된다. 개인 소유권은 6가지 소유권 형태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필수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생산 부문에 제한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만, 쿠바 국민은 외국인보다 제한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계속성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과 철회 불가능한 사회

17) 《Intervención de Miguel Díaz-Canel Bermúdez, presidente del Consejo de Estado y de Ministros de la República de Cuba, en el Debate General del 73 Periodo de Sesiones de la Asamblea General de las Naciones Unidas》, Nueva York, 26/9/2018, p. 8.

18) Proyecto de Constitución de la República de Cuba, La Habana, 2018, título ii, 《Fundamentos económicos》.

주의적 성격은 [2019년 국민투표에서] 비준될 것이다.”¹⁹⁾

대내외적 요인들. 이 절에서는 기업 경영환경 분석에 이용되는 SWOT 분석법을 쿠바 경제에 대입하여 내부적 요인(강점과 약점)들과 외부적 요인(위협과 기회)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약점은 강점보다 더 일반적이며 심각한 수준이다.

[약점]

- GDP 성장률 하락세, 총자본 형성, 농어업, 광업, 제조업 생산
- 재정적자 증가 및 물가상승
- 구조개혁의 이면(자영업)
- 통화(국내 통화와 외환 간의) 단일화 지연
- 국가자문단과 장관자문단 내 다수의 유임된 지도자들, 집권당 내 두 명의 당수 유지
- 중앙집권체계의 근본적인 요소들과 국영 기업의 우세가 유지되는 신 헌법 프로젝트

[강점]

- 토지 사용권 관련 새로운 개혁
- 새로운 세대의 대통령 지명과 지도권의 부분적인 갱신
- 헌법에 개인 소유권 도입
- 정부와 집권당 요직의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제한
- 석유 공급 제한에도 전력공급 증가

19) 《디아즈-카넬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제73차 유엔총회 연설》 중에서

대외적 요인들은 대내적 요인들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위기 요인이 기회 요인보다 더 많다.

[위기]

- 경상수지 흑자폭의 감소세
- 항공 관광객보다 덜 소비하는 크루즈 관광객 증가
- 채무 이행을 위한 수입 감소
- 대외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자에 대한 지불 연기
- 14억 달러의 채무를 청구하기 위한 런던클럽의 소송 제기
- 쿠바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적인 제재 정책
- 설탕의 국제시장가격 하락
- 2014년 대비 2018년 11월의 니켈의 국제시장가격 하락
- 베네수엘라 위기 심화와 전문직 서비스 수출 및 석유 공급, 무역의 지속적인 감소
- 2018년 5월 베네수엘라석유국영기업(PDVSA)의 재산 압류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보수 정권의 집권으로 인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채무들
- 의료 서비스 수출을 위한 쿠바-브라질 간 협정 종료
- 중국과 교역 감소

[기회]

- 215건의 외국인 직접투자 승인(5억 달러가 실현되었음)과 41개의 마리엘 개발특구 내 41개 사업 승인(15건 운영 개시), 연간 25억 달러가 필요함.
- 투자 승인을 위한 유연한 조치

- 외화획득의 제2원천인 해외 송금의 지속된 증가
- 2018년 3/4분기 추세를 유지한다면 관광객 수 증가 가능
- 채무 재협상에 따른 대외 신용도 향상
- 2018년 11월 러시아와 중국과 서명한 협정들
- 2018년 러시아와 교역 증가
- 마리엘 개발특구 내 베트남 기업에 의한 최초의 산업공단 건설
- 멕시코의 새 대통령으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부상은 신용 제고와 스왑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

상기 네 가지 요인 분석을 통해 대외적 요인과 현 제도적 프레임워크 하에서 주요 측면의 가시적인 성과 없이는 2019년 쿠바 경제는 지속적으로 정체 국면에 머무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경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현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실질적인 제도 교체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새로운 헌법은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구속력을 지닌 장치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정혜윤 옮김